

주승용 조직력 탄탄 ... 예비후보 8명 도전장

									
정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이름	김성훈	심정우	백무현	최무경	박종수	주승용	황필환	이광진	
나이	51	56	51	49	59	63	34	50	
역력	·전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전남본부장 ·전 기력청년중앙회 이사	·전 박근혜대통령 후보 호남권특별대책 공동본부장 ·전 호남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겸임교수	·전 문재인대통령 후보 선대위 대변인 ·전 서울신문 편집위원	·전 여수시의원 ·전 나르사관광호텔 대표	·전 주리 대한민국 공사 감사관 ·전 중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초빙교수	·전 초대 통합 여수시장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	·전 여천청년회의소 감사 ·전 문덕동 한라아파트 선관위원장	·전 19대국회의원 출마(여수갑) ·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회 집행위원	·전 4·5대 여수시의원 ·전 여수진보연대 대표

■ 누가 뭐나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주승용(63) 의원이 4선을 노리는 여수에서는 조직력이 탄탄한 현역 의원 탓에 출마자가 적을 것 이란 예상을 깨고 23일 현재 모두 9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심정우(56)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와 김성훈(51) 자연보호중앙회 전남본부장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사만화가 백무현(51)씨와 최무경(49) 전 여수시의원이 공천 경쟁을 벌인다.

현역 의원이 있는 국민의당에서는 박종수(59) 종원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공천을 놓고 주 의원과 맞서고 있다.

황필환(34) 여천청년회의소 감사는 정의당 후보로, 이광진(50) 전 여수세계박람회 여수유치위원회 집행위원과 김상일(53) 전 여수시의원은 무소속으로 각각 나섰다.

◇새누리당=심 교수는 “여수를 대한민국의 선진화 1번지로 만들어 선진화의 바람이 대한민국 전체로 번지도록 하겠다” 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세 번의 여수시장 선거와 한 번의 총선 출마 등 4차례 선거에 나섰다.

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여수지부 이사가기도 한 김 본부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경험이 있다.

◇더민주=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진노(진노무현)계 백 예비후보는 “2012년 대통령선거 때 이명박근혜정권의 연속적인 집권을 막아야겠다며 서울신문사에 사표를 던지고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뛰어들었고, 이번에 새누리당 정권의 연속적인 집권이야말로 ‘재앙’이라는 절박감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수 중·고와 상명대학원을 졸업하고 광주·전남 언론노동조합의위원장, 서울신문사 편집위원, 2012 민주당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전국시사문화기자회의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에 맞서는 최 전 의원은 “플루리 정치



새누리당 심정우·김성훈 경쟁 눈길

더민주 백무현·최무경 당내 공천 치열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에 박종수 맞서

정의당 황필환, 무소속 이광진·김상일 출마

와 봉사단체장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며 총선에 출마했다. 그는 동신대 대학원 관광학과를 졸업하고 여수시의원을 지냈으며 전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바도 있다. 여수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해 나르사 관광호텔을 건립,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더민주 전남도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제해양시대에 걸맞은 창조관광 도시 여수 ▲지역 성장엔진에 날개를 다는 창조산업도시 여수 ▲여성이 지역발전 주체로 나서서 창조여성도시 여수 ▲여수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조국제도시 여수 등이 지역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주 원내대표가 4선 고지에 등장, 명실공히 호남의 대표 정치인이 되겠다고 나섰다. 그는 지난 1991년 전남도의원으로부터 시작해 여천군수, 통합 여수시장을 지내고 여수에서 내리 국회의원 3선에 성공하는 등 선거에 있어서는 타

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해 2·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다 득표를 얻어 당당히 수석최고위원이 돼 중앙정치권에서 호남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여수 지역구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평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관광객 급증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여수에는 어느 때보다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경륜과 역량을 갖춘 중진의원으로서 여수 발전은 물론, 아권 정계 개편을 통한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서 정권교체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는 상대로는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총선 행보를 해온 박종수 교수가 있다. 그는 최근 여수 청소년수련관에서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 기념회를 열고 세를 과시했다. 박 교수는 “국제무대 활동경력을 십분 활용해 러시아 원유와 가스를 타국가보다 저렴하게 도

입, 여수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높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총선 출마 포부를 밝혔다. 경제학 박사로 주 러시아 한국 공사를 지낸 박 예비후보는 현재 안철수 의원 지지모임인 내일포럼 전남지역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민의당 창당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학 박사로 주 러시아 한국 참사관을 지낸 박 예비후보는 현재 안철수 의원 지지모임인 내일포럼 전남 여수를 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의당 창당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무소속=정의당 소속인 황필환 예비후보는 “일용직노동·고대근무·조선소·영업·자영업까지 경험을 하면서 누구보다 서민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기득권싸움을 일삼는 정치인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에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도전장을 던졌다.

무소속 김상일 예비후보는 “여수시민의 요구는 재벌과 일부 지역에 편중해서 독재를 하고 있는 정권에 맞서서 여수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해주라는 것이었다” 며 “1% 기득권세력이 독점하는 정치를 끝내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여수에서 태어나 금속석유화학 노동조합 사무국장(현), 여수시의회 의원(4, 5대)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수진보연대 공동대표, GS원유부 두 원유노동조합 범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여수국가산단 특별법제정 운동본부 본부장(현), 민주민생여수행동 대표(현) 등을 역임했다.

역시 무소속 이광진 예비후보는 여수고, 경희대를 졸업하고 여수경찰서 집행위원, 여수YMCA 지도간사, 민주당 여수를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1998년 광역의원 선거 출마를 시작으로 16·17·19대 총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장기간에 걸친 권력 독점을 통한 나태, 부패, 무능한 정치는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 며 “인식의 전환, 의식의 전환을 통해 여수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에 4번째 4선 의원 탄생할지 주목

■ 관전 포인트

신순범·김충조 전 의원, 김성곤 의원에 이어 여수에 또다시 4선 의원이 탄생하느냐가 이번 여수를 총선의 최대 관전포인트다.

일단 주승용 의원의 지지기반이 탄탄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 도전자들의 맹렬한 추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전남도의원부터 시작해 초대 통합 여수시장, 국회의원 3선을 지냈을 뿐 아니라 두 번의 국회 상임위원장과 당 사무총장, 나아가 지난해 2·8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도 최다득표 최고위원이 되는 등 지방정치와 중앙정치권에서 모두 능력을 인정 받은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나머지 모든 후보들이 최종 타격을 주 의원으로 정하고 ‘반(反) 주승용’ 전선을 펼치고 있는 점이 주 의원으로서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특히 진노(진노무현)계인 시사만화가 백무현씨가 탈당파인 주 의원을 표적으로 삼는 등 진노세력의 조

직적 반발도 주 의원의 격정을 날고 있다.

실제로 진노인사들은 주 의원의 그동안 탈당 전력을 문제 삼으며 공격할 태세다.

더욱이 주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대표로서 또 호남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여수와 전남 동부권을 넘어 전국적인 지원 유세를 해야하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다선의 호남 중진에 대한 수도권 등 혐지 출마나 불출마 선언 등 자기 희생 요구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주 의원은 두 번의 전남도의원 선거 승리, 여천군수·여수시장 선거 승리, 17·18·19대 총선 승리 등 25년여 동안 8번의 선거에서 7번이나 승리한 ‘승승불패’ 신화를 힘으로 이번에도 승리를 확인하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이 비록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지는 않았지만 안철수 대표계인 점도 주 의원에게겐 위안거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청 이전으로 여수갑보다 인구 많아

■ 선거구 특징

여수읍은 통합 전 여천시와 여천군이 포함된 지역으로, 애초 여수시를 근거로 한 여수갑보다 인구가 적어 미평·만덕·둔덕동 등을 떼어와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었다.

하지만, 여수시청이 이 지역으로 오면서 발전을 거듭, 이제는 여수갑보다 인구가 많다. 때문에 다시 미평·만덕동을 감지역으로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여수갑과 상반된 정치의식이 있는 지역은 아니다.

여수갑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다선 의원이 연속으로 배출됐다.

우선 신순범 전 의원이 11대와 12대 다선 의원이 연속으로 배출됐다. 특히 여수시·여천군·광양군 선거구에서 안민당과 신민당 소속으로 연속 당선됐다.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3대 총선(1988년)의 경우 여천시·군 선거구에서 평민당 소속으로, 4년 후인 14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각각 당선되면서 4선에 성공

했다. 불미스러운 일로 신 전 의원이 떠난 15대 국회의원 자리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 김성곤 의원이 앉았다.

이어 ‘3러(羅) 통합’ 후 여수시 단일 선거구로 치러진 16대 총선(2000년)에서는 기존 여수시에서 3선을 하던 김충조 전 의원이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4선에 성공했다.

이어 2004년 17대 총선에서 2012년 19대 총선까지는 다시 여수가 갑과 을로 나뉘어 갑은 김성곤 의원, 을은 주승용 의원이 당을 바꿔가며 3번 연속 승리했다.

이 같은 다선 역사로 봐 이번 총선에서도 주 의원의 4선을 예측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치적 변화가 심할 때여서 쉽사리 결과를 예단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경주일보 ☎ 062-222-8111



ICL(안내렌즈삽입술)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경체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미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인



백원광주안과

법인회생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